광주4년간자치구특별교부금최대157억원차이

북구-서구-광산-동구-남구 순…평균 310억5000만원 북구 406억4800만원 최다 vs 남구 249억4600만원 최저

광주시가 5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특별조정 교부금이 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 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효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미란 의원(남구2)은 7일 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 동안 특교금은 1552억7500만 원으로, 5개 자치구에 평균 310억5000만원이 교부됐는데 남구와 동구, 광산구는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4년 동안 집행된 특교금은 ▲북구 406억 4800만원 ▲서구 334억5300만원 ▲광산구 307억1600만원 ▲동구 252억1200만원 ▲남구 249억4600만원 순으로, 가장 많이 교부된

북구와 남구의 경우 157억 원의 차이가 났다.

지난 2020년 389억900만 원에서 2021년 445억8200만 원으로 56억7300만원 증액되면서 동구 7억5400만원, 서구 10억7600만원, 북구 20억원, 광산 22억2900만원이 각각 증액됐지만 남구는 66억2900만 원에서 62억 4300만원으로 오히려 3억8600만원 감액됐다.

임 의원은 "시가 교부하고 있는 특교금이 자 치구 간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치구별 투명하고 균형 적인 특교금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교금은 인구, 면적, 장애인수, 어린이수 등을 기준과 원칙으로 정해지는 일반교부금과 달리 현안 또는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한 판단에 따라 차등 지급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는 측면이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늘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검토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특교금은 ▲동구 70억8400만

원 ▲서구 98억3900만원 ▲남구 62억4300만 원 ▲북구 123억6900만원 ▲광산구 90억4700 만원 등이다.

최이슬기자

112기 전라남도 도민명에기자 위촉식

김영록 전남도지사(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가 7일 영암 현대 바이라한 호텔에서 열린 '제12기 전남도 도 민명예기자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 홍보 주역…제12기 도민명예기자 140명 위촉 명예기자단과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업무협약도 체결

전남도는 7일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도정 시책을 널리 알리고 지역 구석구석의 현 장 여론을 수렴해 도정 발전을 견인할 '제12기 전남도 도민명예기자' 140명을 위촉했다.

도민명예기자는 전남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 109명과 전국에 거주하는 향우 31명으로 구성됐다.

도민명예기자는 앞으로 2년간 '세계로 웅비 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도민 삶 의 현장 최일선에서 도정을 알리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선 도민명예기자와 '전남 사 랑애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100만 육성'을 비롯,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에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되거 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광주시, 시립정신병원·시립제1요양병원 수탁자 공모 오는 14일 사업설명회 개최…참석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광주시는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제1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오는 28일 까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광산구 삼거동에 자리한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공고일 현재 각각 248병상·257병상 규모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5년이다.

신청자격은 지역제한 없이 공고일 현재 ▲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 ▲보훈병원이다.

위탁 조건은 두 병원은 동일한 수탁자가 운영 하고, 위탁에 따른 운영재원은 수탁자가 진료수 입 등으로 자체 부담해 책임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 모사업 설명회를 연다.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는 오는 25일과 28일 시청 건강정책 과에 방문 접수하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 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이슬비기자

전남도,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국비 전국 최다 노인복지시설 등 77개소 선정돼 국비 9억7천만원 확보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업 공모에서 22개 사업 77개소가 선정돼 국비 9억 7천만 원을 확보했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업은 지자체소유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지난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의 사업을 접수하고 공개평가를 통해 총 222개 사업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2023년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9억

7천만 원 등 모두 19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여수 진남체육공원, 완도 고금 농어민 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60개소 등 77개소에 태양광 1메 가와트(MW)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도민에게 혜택이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주 광산구, 지역 농민 돕기 '광주 빛찬들쌀' 사주기 운동

시민, 기업·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

광주 광산구가 쌀값 하락으로 시름 하는 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광주 빛찬들쌀' 사주기운동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광산구 공직자들은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광주쌀사주기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시민 대상 홍보를 비롯해 광산구 관내기업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도 빛찬들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절선물이나 답례품을 광주 빛찬들쌀로 할 것을 제안하는 등 소비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광주 빛찬들쌀 사주기 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발굴, 추진에도 힘쓸 계 회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쌀은 여전히 우리 식 문화의 중심이자, 한국인 삶의 중심 뿌리다"며 "지역 농민과 농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쌀 소비 촉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 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광주 메디헬스 산업전…11~13일

의료·뷰티산업 활성화와 기업 판로개척의 한마당이 될 2022광주메디헬스산업전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광주시 주최, 김대중컨벤션센터·코트라(Kotra)·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스마트의료와 헬스케어·뷰티·화장품 등 130개 업체 300여 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광주 의료산업 공동관은 광의료·치과·안과· 정형외과·치매·화장품 등 6개 테마로 구성되 며, 지역 60여 개 업체가 메디시티 광주의 선진 화된 의료기술과 뷰티 산업을 홍보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체험존에서는 VR 의료기기 체험과 치매·당뇨진단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생체의료·병원중심 AI·웰에이징헬스케어·의료로봇 등 데이터 기반 메디케어 기술과 굴지의 강소기업들이 신규 참가해 첨단 의료기술을 선보인다.

K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뷰티케어존에는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전남대학교병원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남부대학교 등이 참여, 피부측정과 두피진단·맞춤형 화장품 컨설팅·화장품 시연회를 연다.







■ 세무기장·조정